

세상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활동을 하는

- 손종명 회원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회원 이어말하기’ 일곱 번째 주자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 조직국장이자 전북 지역 회원인 손종명입니다. 2019년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첫 직장이었고 2021년부터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조직국장이라고 해도, 전북본부에 상근자는 본부장님 포함 3명뿐이라서요. 조직, 선전, 교육 다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사업장, 투쟁 사업장 지원 등 두루 맡고 있습니다. 지역본부 활동은 어찌 보면 ‘백지’ 같아요. 욕심내고, 의욕 있으면 뭐든 채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망망대해 앞에 선 것처럼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노조에서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

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기억은 리사이클링타운 대응 투쟁이었죠.¹⁾ 3년 동안 투쟁했거든요. 2024년 1월부로 11명 집단 해고 당하기 전에, 임금협약 때문에 2년 동안 파업 투쟁을 했어요. 2023년 가을 겨우 임금협약을 체결했더니 운영사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를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협약 체결 고작 몇 개월 뒤부터 집단 해고에 맞선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그 와중에 가스 폭발 사고가 났어요.

처음에 노조 올 때 열사투쟁, 해고(철회) 투

1)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은 전주지역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전주시가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세워, 태영 건설 등이 합자한 (주)전주리사이클링에너지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었다. 운영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동자 11명이 고용 승계되지 않아 투쟁이 시작됐다. 투쟁 중이던 2024년 5월에는 가스가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11명의 해고자는 2024년 10월 전원 복직되었다.

쟁은 하기 싫다 생각했거든요. 누군가의 삶을 짊어지는 선택을 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게 너무 무겁고 두렵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리싸이클링타운 투쟁에서는 해고도 있었고, 우리 조합원은 아니지만 누군가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던 거죠.

노동안전에 대해서도 리싸이클링타운 투쟁 전엔 중요하던 걸 알지만 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노동안전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끼게 됐어요. 사고 전인 2023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는데, 회사나 전주시가 방치한 사이에 2024년 가스폭발로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토론회에서 최민 동지가 악취 발생시키는 가스 등의 환경기준이랑 산업안전 기준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줬었는데, 그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사업장 내 악취가 심한 데도, 문을 열면 민원이 들어와서 ‘문을 닫고’ 일하라고 하는 상황이 그래서 생겼던 거구나 알게 됐죠. 노동자들에게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으면 악취로 고통도 덜 받고 유해가스도 적었을 텐데, 그러면 사고도 안 났을 텐데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리싸이클링 사고 대응하다가 연구소에도 가입하게 되었죠?

네,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2023년에 리싸이클링 대응하면서 한노보연에 이런저런 도움 받고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런 여름날 갑자기 전화 와서, 여름맞이 기념으로 회

원 가입하면 어떠냐고 하셨었죠.

전북에서는 연구소 오랜 회원인 강문식 선배랑 친해서, 한노보연의 존재는 알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소득이 생기면 후원하고 싶은 단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해 주셨을 때 흔쾌히 가입했습니다. 후원회원만 할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후원회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회원이 됐죠. 지금도 후원회원 있으면 후원회원만 했을 것 같아요. (웃음)

2024년에 가스 폭발 사고 났을 때도 어떤 걸 조사하고,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지 유훈희 동지가 도움도 많이 주셨고요, 그 이후에 토론회 할 때도 한노보연에서 직접 와주셔서 큰 힘이 됐어요. 지역에서는 노동자건강권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얘기해주는 전문가나 활동가가 너무 적어서 항상 아쉬워요.

하필 오늘도 전주에서 BTO 재개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 보고, 참 끈질긴 문제구나 싶었어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할 것 같아요. 민간 자본들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위탁 운영에 참여하다 보니, 지역의 토호들, 주요 업체들이 다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어요. 심지어 지역 방송사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행정에 대해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파괴되는 거죠. 이걸 정말 제한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외에 연구소가 하는 활동 중에 인상적인 게



▲ 2026.8.13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사무실에서 만난 손종명 회원. 사진 : 한노보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 보고 연구소를 잘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웃음) 뉴스레터 보내주시면 열어 보긴 합니다. 쪽 내려보면서,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하는 정도예요. 그걸 참고해서 내 활동에 반영하거나, 회원으로서 사업 제안하거나 그런 건 아직 못하고 있네요. 아주 소극적인 회원이라서 이 인터뷰도 처음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꼭 회원 활동이 아니더라도 노동안전보건 의제, 노동자 건강권 투쟁이 노동조합에서 잘 활용, 배치되면 좋겠다는 게 연구소의 바람인데요, 이게 잘 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노조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중요하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잘 다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사고 나면 수습을 잘하는 것, 단체협상 과정에서 여러 요구안 중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 요구안 중에 투쟁해서라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의제에서는 밀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의제를 노조 활동으로 다

룰 만큼의 지식이나 관점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조합원들이 느끼는 불편함, 어려움이 중요하고 이런 경험을 요구로 만들어야 하지만, 이것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법적 근거, 계량화 등 정책화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지자체나 사측뿐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을 설득하려 해도 이런 정책적 역량이 중요한데, 노동안전 부분에서는 이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노조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다 풀어야 하다 보니 과부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노동안전은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 부끄럽네요. 2년 전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내가 적극적으로 한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 연구소가 전북 지역 회원들과 일상적으로 같이 하는 게 별로 없어 미안하거나 아쉽기도 한데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뭘 해 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연구소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노보연은 좋은 일 하는, 믿음이 가는 조직이고, 응원하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은 단체여



▲ 인터뷰가 있던 날도 전주시 신규소각장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재검토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다. 맨 왼쪽이 손종명 회원. 사진: 한노보연

서 후원하는 거예요. 저 자신이 노동안전 역
량이나 관점이 뛰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제
도나 어떤 사건에 대한 관점을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
저 떠오르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땀땀하게 도움을 요구하기 위해서 회원 하
는 것도 있어요. (웃음)

그래도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반기나
일 년에 한 번이라도, 회원을 모아내는 모임
을 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24년도에 전
북 회원 모임했을 때, 금속노조 전북지부 유
준 동지가 한노보연 회원인 걸 처음 알았거
든요. 다른 자리에서 종종 보지만, 서로 한노
보연 회원이라는 얘기는 안 하니깐요. 이렇
게 가끔 연구소가 어떤 고민 있고 무슨 활동
하는지 공유도 해 주시고, 지역 회원들끼리
면 트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활동가로서 최근의 고민이 있다면 나
눠 주세요.**

매일의 활동이 쳇바퀴 같아요. 당연히 세상
을 낫게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거고, 우리
노조는 공공성 같은 지향점도 있죠. 하지만

현실의 일상 활동은 이런 지향을 향해 한걸
음씩 나아가는 것이라기보다, 사고가 났
지면 대응하기 급급한 것 같아요. 한발 나아
가기보다 마이너스 된 상황을 원상복귀하는
방어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고요. 하나 해결
하면 다른 일이 또 터지는 상황의 반복이니
까요.

최근에 만도 중대재해를 보면서 한노보연
활동가들 생각도 했는데요, 노동안전보건 활
동가들도 재해 발생하면 달려가서 대응했다
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사고가
터지는 상황의 반복이잖아요. 게다가 그 사
고들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답답
하거나 절망스럽기도 하고요. 한노보연 활동
가들도 이런 점에서 자기 의욕을 계속 유지
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작년쯤 선배로부터 ‘노동조합에서 뭘 하고
싶은지 잘 찾았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받았
어요. 저도 노조 활동한 지 벌써 8년째이니
까요. 최근에는 ‘세상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
추는 활동’ 정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의 화두입니다. **앞**